

5~8일 유통업계 매출 최고 57% ↑ 황금연휴 특수효과 '톡톡'

소비성향 강한 어린이·어버이날 겹쳐

지난 4일간의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제대로 열었다. 특히 임시공휴일 소비 진작 효과가 지난해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광복절 연휴기간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최고 50% 넘게 성장하는 등 백화점 3사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복절 연휴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7%의 매출 성장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이는 소비성향이 강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겹쳐 선물수요가 겹치면서 경제적 효과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은 'h' 기간(5~8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4% 성장했

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64.1%), 패션잡화(51.5%), 아동(49.4%) 등 선물용품의 매출 증대가 두드러졌으며 레저용품(31.5%)도 많이 팔렸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영업전략팀장은 "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 기간 동안 백화점에 많은 고객들이 찾았다"며 "특히 4일부터 진행된 롯데백화점 블랙소프데이 행사에서는 1, 2, 3만원 균인가 상품 물량이 80% 이상 소진 되는 등 선물상품을 사기 위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이 기간 매출 성장률은 29.4%였다. 부문별로는 아동(41.5%), 가전(38.7%) 주얼리/시계(38.0%),명품(35.6%), 여성(27.8%), 남성(20.9%) 순이었다. 현대백화점은 8일까지 나흘간 해외 패션 화장품 잡화류, 아동복 등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률이 14.5%를 기록

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8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가정의 달 선물 수요가 집중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황금 연휴로 매출이 반짝 살아났지만 다만 아직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도 황금연휴 특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5~7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다. 롯데마트 측은 "5월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전 점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9%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면세점의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롯데면세점은 5~8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6% 급증했다. 전 점 기준 중국인 매출은 43% 증가했고, 일본인 매출은 5% 늘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 카테고리의 매출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호텔에서 느끼던 안락함 집에서도 9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침구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전세계 웨스틴 계열 호텔 객실 방에 비치된 매트리스, 침구를 소개하고 있다.

전북은행, 군산 스리랑카 체육대회 참가

이주민 포함 400명 참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8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제5회 스리랑카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군산 장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쌓기 위해 개최됐으며 스리랑카와 이집트 등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300여명, 섬주민 100여명 등 약 400명이 참여했다. /정영수 기자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190만 명에 이르며 이는 2006년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E-9 Visa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외국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구성 및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ex-행복매장 운영자 모집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ex-행복매장 운영자를 모집한다. ex-행복매장은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내 고정식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식음료, 약세사리 등 기념품, 식물소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x.co.kr/atoet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기관 모집

전북지방중기청서 23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탁)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사업화 공간 확보 등이 어려운 1인 창조기업에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시설 및 전문가멘토링, 외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등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지정되면 비즈니스 공간 지원과 운영인력 등 센터운영을 감안 일반정당 9천

만원 특화형센터 1억5,000만원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영지원비(교육, 네트워킹 활동, 전문가자문, 선택형사업홍보, 입주공간 운영비), 인건비(장담인력 인건비), 센터운영비(여비 및 수송비)를 지원받는다. 운영기관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공간과 경영지원이 가능한 인프라와 지원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지정요건은 사무공간 165㎡(50평)

이상을 갖추고 개인 전용공간(1인실) 10석을 포함해 20석 이상의 사무·작업공간 및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센터의 입주공간 등 지원 인프라 현황, 센터 운영체계 및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계획,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63-210-6413) 또는 창업진흥원 지식창업팀(042-480-4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농지은행사업 도내 1위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가 2016년 농지은행사업 워크숍에서 도내 10개 지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가 최근 충남 예산 덕산읍 파개골에서 열린 2016년 농지은행사업 워크숍에서 '2015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 결과' 도내 10개 지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부안지사는 농지매매 44억 800만원, 임대차 28억2000만 원, 경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농가 직거래로 행사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4900만원), 임대수익 100ha 등 420억34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해 농업인인 영농규모 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어촌공사 사장 상을 수상했다. 김병수 지사장은 "올해도 120억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인의 경영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영농생활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 롯데백화점, 지역농가와 상생 힘써

수익개선 프로그램 운영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종규)이 추진 중인 도내 농가들의 실질적인 수익개선에 도움을 주는 '지역 농가 상생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달 29일부터 불안정한 판로로 고전하고 있는 전북 소재 농가를 발굴해 '산지 직송 판매' 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진안에 귀농한 장하천(53)씨

부부의 고랭지 표고버섯을 판매하고 있고 출하량 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0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표고버섯 한 품목의 입고량이 1톤에 육박하고 1천500만원 매출로 백화점 전년 체소 매출에 비해 50% 가량 올라 고객의 인지도도 많이 올랐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진안군 산전면 표고버섯 출하량도 전년 비에 100% 이상 늘어 롯데백화점과 지역 귀농인

과의 윈윈(Win-Win)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 박종규 점장은 2000여명의 백화점 직원에게 직원식당 메뉴로 귀농인 고랭지 표고버섯요리를 만들어 모든 직원들에게 맛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수직원에게는 표고버섯세트를 선물로 주는 다채로운 홍보 이벤트를 가졌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박종규 점장은 "이번 전북 농산물 산지 직송 행사 성공사례를 단계적 판매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농가 직거래로 행사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개발공, 자매결연 농촌마을에 여름용 가전제품 전달 후 간담회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 이하 공사)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자매결연 농촌마을에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다. 공사는 지난 9일 '새싹 자매결연 마을인' 무주군 무풍면 상하마을·계부마을을 찾아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 등 여름용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마을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 무주군 백경태 도의원,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공사는 '사회환원'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도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하여 일손 돕기, 마을 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 기증 특산물 직거래 등 '새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전북지역 동쪽으로 끝에 위치한 상하마을·계부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재찬 사장은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도시와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공공기업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